

총감독회(Council of Bishop)에 드리는 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 가운데서 저희 연합감리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감독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총회가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는 예상 할 수 없지만, 미국내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이미 한교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교총은 교단이 분리될 경우 WCA와 함께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 한인연합감리교회 가운데는 교단이 분리가 되어도 연대주의 정신과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면서 교단내에 머물기를 원하는 목회자, 평신도, 교회들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PSKUMC(Post Separati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로서 발족했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교단이 은혜로운 분리를 할 경우 PSKUMC는 총회 감독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리며 협조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PSKUMC는 전체 한인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입니다. 2021년 총회를 통해서 교단이 은혜로운 분리를 할 경우 몇몇 한인교회들과 한인교회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떠남으로 한인총회도 은혜로운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PSKUMC는 타인종 목회자, 여성목회자, 2세 목회자 들과 함께 새로운 한인총회를 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PSKUMC내에 한인교회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전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 파송에 있어서 전통주의적 입장을 가지지 않은 목회자가 파송을 받게 되면 교회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단이 은혜로운 분리를 하더라도, 남아있는 한인교회들에 같은 신앙의 색깔을 지닌 목회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보장해 주길 바랍니다.

셋째, UMC교단이 은혜로운 분리가 될 경우 한인연합감리교회내에도 분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효과적인 PSKUMC한인교회들의 선교를 위해서 각 지역총회(Jurisdictional Conference)에 대안구조 (예: 미션District etc.)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PSKUMC에 속한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은 각자 연회에 행정적으로 속해있지만, 대안구조를 통해 선교와 교제, 그리고 전략적 목회 협조를 마련해 나아가갈 것입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한 총감독회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를 드리며, 총 감독회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PSKUMC 회장: 안명훈 목사

총무: 이용보 목사